

간척지 풋거름작물 혼합재배로 땅심 높여

농진청, '호밀' + '헤어리베치' 혼합 재배... 질소생산량·토양 유기물 높여 땅심 증진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간척지에 풋거름작물을 재배하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부족한 땅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풋거름작물은 농경지에 재배해 개화기 이후 식물체가 녹색일 때 갈아엎어 토양에 넣어 주는 천연비료이다.

보통 콩과작물이나 벼과작물을 단일 재배해 사용하나 농촌진흥청 간척지 농업연구팀의 연구 결과, 혼합재배했을 때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이 새만금 간척지에 벼과작물 호밀과 콩과작물 헤어리베치를 혼합재배한 결과 식물체 밀린 수량이 10아르(a)당 502kg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호밀(446)과 헤어리베치(195)를 단일재배한 것에 비해 각각

1.12배, 2.57배 높은 수치다. 질소생산량은 10아르당 7.21kg로 호밀(3.17)과 헤어리베치(3.19)에 비해 각각 2.27배, 2.26배 높았다. 토양 유기물을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풋거름작물을 토양에 투입한 60일 뒤 유기물 함량은 혼합재배가 9.29g/kg으로 호밀(9.48), 헤어리베치(8.39)와 비슷했

나, 화학비료 재배(6.17)보다는 1.5배 높았다.

간척지 토양은 해수면을 메워 만든 농경지로 염 농도는 높고 토양 지력은 낮으며 보유하고 있는 양분은 불균형하여, 작물 재배 시 안정적인 수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풋거름작물은 유기물 공급,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잡초 억제, 토양 유실 방지, 휴경기 관리, 경관효과 등 많은 장점이 있어 경작지에서 작물을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새만금 간척지에 작물 재배에 따른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풋거름작물을 이용한 자연순환 농업은 친환경적인 재배 기술로, 화학비료 대체와

유기물 공급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호밀과 헤어리베치는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다. 가을에 파종해 이듬해 봄(4월 중순~5월 상순)에 토양에 환원하며, 파종 적기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다. 대전 이남 지역은 11월 20일까지 파종할 수 있다.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려면 파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연구팀 고종철 과장은 "간척지 토양은 염 농도는 높고 땅심과 양분 보유량은 다소 낮다. 풋거름작물 혼합재배는 땅심을 높여 간척지의 안정생산을 끌어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11일 공단 본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노사동행 선언식'을 개최했다.

'노사가 하나되어 저출생 위기극복'

국민연금공단, '노사동행 선언식'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강, 이하 지부)는 11일 공단 본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노사동행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단과 지부는 저출생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일·가정양립 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협력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사동행 선언문에는 △가족 친화적 복무제도 적극 활용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공공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발굴 △일·가정 양립 정착을 통한 국민신뢰 제고 내용을 포함하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강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금전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공단 차원에서는 가입자 감소 등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과다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노사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노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일·가정양립 정착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집중도 높은 근무문화 조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노사가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일산 메가쇼 시즌2 계약·현장매출 실적 1억5000만원 성과

바이오진흥원, 전북도만의 콘셉트 나만의 삼시 세끼 소비자 호응 높아

바이오진흥원은 일산 킨텍스메가쇼 시즌2 행사에 참가하여 수도권 판로 개척을 이어갔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통식품 기업 및 지역특화 6차산업 선진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개최한 일산 킨텍스메가쇼 시즌2 행사에 참가하여 수도권 판로개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7~10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메가쇼 시즌2에서는 도내 우수한 전통식품기업 및 지역특화 6차산업 선진기업 18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하여 현장판매 실적 7천만 원, 계약성과 8천만 원 등 총 1억5천만

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바이어들과의 후속 협상결과에 따라 추가 납품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바이오진흥원은 박람회 기본 콘셉트를 벗어나고 주부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색다른 콘셉트로 참가하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본 제품 부스가 아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나만의 삼시세끼", "오늘은 집밥" 부스와 세프북 착용 등 차별화된 전북관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주목시켰다.

특히 '맑은상회F&B', '뽕의도리'는 현장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각각 해외 납품 1건, 국내 납품 1건의 현장계약을 이뤄냈고, '그린팜푸드', '두순푸드', '뽕의도리', '초이리브루어리', '홍삼이

생강날때, 오메이콜농원' 등 6개사가 완판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바이오진흥원의 독창적인 마케팅이 추가된 판로개척 행사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독창적이면서도 고객 맞춤형 감성 컨셉으로 참여한 곳은 전시장에서 전북공동관이 유일했다. 덕분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더 잦았다. 이런 차별화된 판로개척 행사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미 원장은 "일산 킨텍스 메가쇼 2 행사에서 전북기업이 좋은 성과를 올려 기쁘게 생각한다. 식품산업의 메카인 전북자치도 민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업체들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여성청소년 위한 '딸에게 보내는 선물'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여성청소년을 위한 2024 '딸에게 보내는 선물'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성모 배분사업팀장,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과 김태희 여성위원회 위원장,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및 전북은행 노동조합 여성위원회 40여명은 여성청소년을 위한 400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1,500박스 포장 봉사활동에 참여해 이웃사랑과 나눔을 몸소 실천했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여성청소년들에게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경진원, 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 시장개척 무역사절단 진행

정석케미칼 등 10개사 참여... 건축·기계, 미용용품 등 전략 품목 수출상담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원장 윤여범, 이하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제3차 전략 무역사절단(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을 파견한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10~16일(5박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파견되는 일정으로 도내 건축·기계, 미용용품, 생활화학제 등

을 전략 품목으로 수출상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는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재 분야의 관심증가, 도시화 및 인프라 개발로 관련 유망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한 유망 시장이다.

경진원은 무역사절단의 실질적인 수출 성과 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사,

통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유력 바이어를 발굴해 참가기업에 제공했으며 수출전문가 등을 연계한 교섭을 지원했다.

경진원 윤여범 원장은 "이번 상담회는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종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임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 신임 상임감사로 전종화 전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이 임명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안정과 유통개선, 수출 진흥과 식품산업 육성사업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본사는 광주전남혁신도시 나주로 이전했고 전국 시도에 11개 지역본부와 미국, 유럽, 일본 등 18개 해외 지사에서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종화 신임 상임감사는 "공공의 성과를 높이고,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경영 결재와 지원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신임 전종화 상임감사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전남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원예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에 입문해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경제자유구역청행정개발본부장 등 지방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특히 농업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농정 전문가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

